

우리동네 전파상

【서식 4】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

프로그램명	우리동네 전파상			

1. 프로그램 추진 배경

우리 학교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중3부터 고3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 선택권을 주고 있다.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는 과정에서 전자제품에 관심을 갖는 아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파트에 전자제품 수거함은 버려지는 전자제품으로 가득했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자원을 고갈시킨다. 버려진 전자제품은 지구환경을 파괴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 나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2018년 3월, 우리동네 전파상을 만들어 운영해보기로 했다.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택교과 수업을 활용하여 버려진 전자제품을 수거하고 분해, 결합과정을 거쳐 고장원인을 파악하여 수리메뉴얼을 만들었다. 마을에서도 아이들의 활동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었다. 부산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첫해에는 다양한 전자제품의 분해, 조립과정을 거쳐 우리 손으로 고쳐진 전자제품에서 큰 성취감을 느낀 한 해였다. 각 해마다 컴퓨터관련 하드웨어 구성과 조립, 소프트웨어 설치, 앰프와 음향도구에 대한 강좌, 드론 등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른 깊이 있는 교육 강좌를 진행하였다. 강좌마련과 함께 마을 강사인력풀을 구성하고 마을행사에도 참여하여 청소년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사례

□ 프로그램 명: 우리동네 전파상

가.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목표:

-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선택교육과정 모델 발굴
-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단위 자원재생사업 모델 발굴
-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의 기회 마련

- 마을전파상 운영 및 마을환경축제 참여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련
- 나) 참여학생 수: 연간 10명 내외
- 다) 운영 기간: 2018년 3월 ~ 현재
- 라) 예산 집행액(2019년 기준)

항 목	산출내역	총 계
강좌 사업	○교육 강좌: 강사비 10만×10회 ○교육 재료: 1인 2만×10명	1,200,000원
홍보	○현수막(마을거점) 2EA: 154,000원 ○배너현수막 거치대 2EA: 36,000원 ○배너 현수막(주민센터) 2EA: 33,000원	223,000원
바자회	○포장재: 재활용박스 등 ○현수막(실내) 1EA: 33,000원	308,000원
사업재료	○전기전자 관련 공구 구매 ○작업 장갑(3M슈퍼그립200), 마스크 ○각종 소모성 수리 부품	1,005,000원
보고서발간	○권당10,000원×50권	500,000원
사업진행비	○강좌시 다과 10회×30,000원 ○바자회: 마을축제 준비모임 다과 6회×20,000원 ○바자회 진행비(준비물·다과): 44,000원	464,000원
합 계		3,700,000원

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프로그램 준비

구 분	내 용
청소년 관심분야 조사	- 중3~고3 학생 대상 선택프로젝트 선정 조사 -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젝트 선정
강사풀 마련	- 청소년 관심분야를 해소할 강사진 구성 - 강좌 계획 마련
학생모집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 내 손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즐거움을 찾고 싶은 친구, 환경문제를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친구, 물건의 소중함과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싶은 친구, 우리동네 전파상에 관심있는 친구

나) 프로그램 진행

구 분	내 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현황조사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조사 및 수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전문관련 교육 2회 - 전기전자관련 교육 2회 - 컴퓨터관련 교육 4회 - 재생에너지관련 교육 2회 - 마을 전문인력풀을 중심으로 매년 총 10회 강의진행
전파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진 전기전자제품 수거 - 분해 조립을 통한 구성 파악과 고장원인 찾고 고치기 - 수리메뉴얼 정리 - 상설 전파상 운영
행사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환경문화축제 참여 및 우리동네 전파상 홍보 - 자원재생 홍보를 위한 바자회(수리물품 전시 및 판매) 운영

다) 프로그램 마무리

구 분	내 용
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소감문 제출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해 우리동네 전파상 활동 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 - 학년말 버려진 전자제품 전시회 및 수리 과정 발표
내년 학생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해 학생모집 및 활동계획마련

다. 프로그램의 특징 및 장점

-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다.
- 고장 원인을 찾기가 쉽고 자신의 힘으로 고쳐 냈을 때 성취감이 크다.
- 지속적인 성취의 경험이 이론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이 가능.
- 마을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마을 장난감 도서관 및 마을 연계 활동으로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 초기 비용 외에 버려지는 재료를 재활용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가능.
- 우리동네 전파상을 청소년이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기획 능력이 높아진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과 단체간의 연계활동 가능.

라.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개인이 지원할 경우 제외 가능)

응모자	주요역할
프로그램 운영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 학생 모집 -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마련 - 마을 인력풀 마련 및 강사진 구성 - 프로그램 사전 사후 평가 관리
프로그램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에 대한 특강 진행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확산 가능성

어린 시절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던 일이 생각났다. ‘지금 여기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해 보았다. 마을 아파트에 있는 전자제품 분리수거장을 돌면서 버려지는 전자제품을 조사하고 가져와서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자 다양한 관심으로 전파상에 온 친구들이 분해하고 조립하는 즐거움을 찾으면서 어려운 강의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도 전기 전자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전자제품을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미만 찾다가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지 못하고 끝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교사가 부족한 덕분에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의 욕구를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의 욕구를 풀어줄 마을 선생님들을 찾고 인력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분해 조립을 즐기던 친구들이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나서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가지고 어려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어렵게 마을에 사시는 전문강사님을 모셨다. 어려운 이야기도 경청하고 실습동안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전파상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제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는 모습이 익숙하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배움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전문선생님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방법도 배우면서 컴퓨터 부품을 사고 조립컴퓨터를 만들어냈다. 버려진 컴퓨터에서 부품을 재활용한다. 음향기계, 태양광, 드론 등 해마다 관심분야는 확대되고 마을에서 선생님을 찾아 배움의 욕구를 실현해 간다.

두 번째 성과는 마을사람들로 구성된 인력풀이 마련되고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 것이다. 마을 가까이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 고장난 장난감 수리 봉사활동을 한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고 칭찬받는 경험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에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마을 사람들의 격려 속에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시작 초기에는 아파트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그냥 가져와도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자제품 수거함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이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따로 전자제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주민자치센터와 의논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전자제품 수거함이 만들어졌다. 작은 어려움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수리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지만 이후에는 큰 비용없이 운영할 수 있어 좋다. 초기 수리도구 구입도 부산시 지속가능협약회의의 도움으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해결할 수 있었다.

요즘은 집수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우리 마을 근처에 마을협동조합으로 노후된 집수리를 하는 곳이 생겼다. 협동조합 소속 전기전자 강사선생님을 통해 소개받고 집수리에 관심이 생겼다. 기회가 된다면 배수, 배관, 도배, 전기 등 집수리에 대한 관심을 이어 활동 내용을 확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참고: 프로그램 운영 사진(분량: 1페이지 내외)



[사진 1] 버려진 전자제품 조사



[사진 2] 전기분야 특강



[사진 3] 컴퓨터 프로그램 특강



[사진 4] 마을환경축제 참여

※ 전체 5~7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사진 첨부 포함)